

도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성교육 실시의 타당성과 성교육 지도방향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 문희* · 정 옥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A Study on Sex Consciousness, Sex Problems and Sex Education of Urban Adolescents —Focusing on the Validity and the Necessity for Enforcement of Sex Education—

Lee, Moon-Hee* · Chung, Ock-Bo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ex consciousness, sex problems and sex education of adolescence emphasizing the validity and necessity for the systematic enforcement of sex education.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representing six categories, the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sexual knowledge, sex consciousness, sex morality, sex problems, and sex education,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as 224 middle school students and 267 hight school students in Seoul.

Sex ratio of these subjects was about the same;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Chi-square, and severed one way ANOVA's and two way ANOVA's were performed .05 was used as a significance level in this study.

The most important findings in the study showed that that most of the students wanted the systematic sex education in school, especially by the professionals in the sex education field.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정으로서 신체적으로는 제 2차 성장을 경험하며, 정신적으로는 자아정체감의 혼돈 및 가치관의 미숙숙으로 인한 심한 긴장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현재 우리의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과 유난히 강한 부모의 교육열 탓에 그 암박감과 정신적인 고통은 더욱 가중된 상태인 반면, 그들의 신체적, 성적인 성숙도는 연령적으로 낮아져 성장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이다.

유교적 전통과 윤리관이 내재된 그동안의 우리사회에서 ‘성’에 관한 언급은 거의 금기시 되어왔었고, 최근 서구의 영향으로 인한 급격한 성개방 풍조는 ‘성’에 관한 중도가 없는 극과 극의 성가치관을 형성하기 쉬운 환경이라 하겠다.

이로인해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성장, 변화해가는 자신의 신체와 그에 따른 의문이나 불안을 해결할 만한 정확한 지식 또는 적절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며, 범람하는 왜곡된 ‘성’에 관한 정보 및 주위환경으로 인하여 십대들의 성적 탈선 및 성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에 대한 관심이 뚜렷해지는 시기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정보들의 유해성과 이성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욕을 충족시키려 하는 태도, 성의식의 적응이 원만하게 유도되지 않을 경우, 심리적 불안이나 갈등으로 인해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며, 전전한 성인으로서 성장하는 대에 큰 장애를 가져다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제 2차 성장이 나타나는 시기에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¹⁾

그러나 일선학교 사정으로는 현재까지도 성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실시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지도에 불과하여 체계적인 지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²⁾

김정희³⁾는 대부분의 학교가 성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실시하는 경우라도 여자에게는 안 하니만 못한 순결교육이고, 남녀의 생식기에 관한

파상적인 이해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러한 파상적 성교육은 성에 대한 혐오감을 주거나 심지어 잘못된 여성관만을 심어줄 뿐이므로 사실상 성교육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바람직하고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만 하며,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전한 이성관의 형성 및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성의식 및 성문제, 이성교제 현황 등을 알아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성교육의 방향 및 방법에 관하여 타진해 봐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성교육 자료 및 방향이 제시될 것이기에 본 연구의 필요를 느껴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실태 및 성의식, 성문제 등을 조사 연구하여 문제점을 발견, 재인식함으로써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학교내에서의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밝히며, 개인적 변인에 따라 집단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발달단계 및 성별에 알맞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성교육의 자료와 교재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개념 및 발달 특징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아동기는 벗어났으나, 아직 성인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12~18세 사이의 연령층에 속하면서, 주로 자아 정체감의 형성에 몰두하는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청소년이 정확히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나는가에 대한 의견은 일치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성장이 점진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이며,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⁴⁾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전제하에 12, 13세의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사춘기가 끝날 무렵의 18, 19세에 이르는 중, 고등학

생을 청소년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인 모든 면에서 질적, 양적인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신체적 발달특징으로는 제 2차 성징의 발현과 급격한 신체성장을 들 수 있다.⁵⁾

또한 청소년기의 정서는 일반적으로 격정적이며, 일관성이 없고 막연하며 불안정한데, 그 원인은 청소년기에 직면하는 환경과의 대립이나, 또는 욕구 상호간의 갈등, 신체적 성숙과 불행 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에 있다고 하겠다.⁶⁾

Schwartz와 Merten⁷⁾에 의하면, 청소년기에는 친구, 동료와 사귐으로써 그들의 태도, 사회적 기술이나 사회적인 통찰력이 발전되며, 때문에 양친지향적 사회화에서 동료에 의한 사회화로 전환된다고 하였다.

Jersild⁸⁾는 청소년기의 성을 성적으로는 성숙되어 있지만, 사회적 통제와 미혼이라는 이유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른바 성적 실업자로서의 관점에서 성인의 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는 남녀간의 성숙한 관계형성, 이성간의 교우관계의 적응에 대한 관심,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수행능력 배양, 올바른 이성관과 흥미의 확립 등이 성발달에 따른 중요한 적응관계⁹⁾라고 할 수 있다.

2. 성의 개념 및 성적 특성, 성가치관

Freud¹⁰⁾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본능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libido(성본능)'는 일생을 통해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최신덕¹¹⁾은 단지 그의 주장만이 아니라도 인간의 모든 활동(성적인 것과 무관해 보이는 것 까지도)은 사실상 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때문에 성의 역할은 지나치게 강조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윤현숙¹²⁾은 '성'을 남성과 여성의 특징적인 차이, 생식의 과정, 생식기관을 자극함으로써 얻는 신체상의 쾌감이나 만족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정하성¹³⁾은 성의 개념을 생태학적으로는 남녀의 단순구분과 종족보존 차원의 실존채로, 사회심리학적으로는 사상의 상호 표현행위와 안정과 욕구충족의 성적 쾌락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성에너지'가 성적 작

용을 일으키며, 이런 기능에 대한 욕구를 성적 욕구라 하며 Murray¹⁴⁾는 '성욕은 성적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며, 성적 교섭을 갖고자 하는 욕구'라고 정의하였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성'은 생식(reproduction)의 기능과 직접적인 성욕의 충족 또는 성적 쾌락을 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안창선¹⁵⁾은 인간의 성이 갖는 의의를 생명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으로의 동물과의 공통성과 남녀나 친자간의 인격적, 정신적인 연대성이라는 측면으로의 차이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성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검정회¹⁶⁾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성에 대한 야누스적인 두얼굴로, 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는 긍기적 성문화와 여기저기 지천에 깔려 있는 성을 상품화한 색골적 성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성의 상품화로, 성을 파는 것의 유품이 매출이지만, 직접 행위하지 않고도 호기심 충족 내지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보는 성'이 상품화되기 시작하여 청소년을 상대로 무차별 공급되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세째는 상품화된 성의 거의 모두가 남성 중심적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으며, 공격적이고 가학적인 성은 남성의 정상적인 성이라는 신화가 만연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3. 청소년기의 성

Jersild¹⁷⁾는 청소년기의 성적 특성으로 첫째, 신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청소년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불안과 호기심으로 이해하려 하며, 둘째,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성적 사상에 대한 탐구심이 왕성해진다고 하였다. 셋째, 이성에 대한 관심이 싹트며, 이성에 대한 접근과 교제를 하고자 원하지만, 교제라는가 연애 및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이해가 서있지 않으며, 막연히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의 견해와 사고방식에서 행동한다. 네째, 이 시기는 성욕의 배출구 때문에 문제를 갖는 자가 적지 않으며, 사회적인 성문화에 의한 자극이 강하여 이를 소화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문제가 크다. 다섯째, 특히 성인의 성도덕관과 청소년의 성도덕관의 차질 때문에 때로는 억압된 형태로, 때로는 방임적

인 형태로 기울어져서 이 때문에 여러가지 성적 악순환의 문제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청소년기의 성적 행동으로는, 성적인 꿈을 꾸면서 사정을 하는 풍정현상,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거나 스스로를 애무하여 성적 괘감을 느끼는 자위행위, 미성년 남녀의 성교행위 등을 들 수 있다.¹⁸⁾

건강한 청소년이라면 보편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생리현상이 바로 성충동이며,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매스미디어, 선정적인 잡지, 영화, 바디오, 친구나 데이트 상대의 압력 등이 모두 고려될 수 있으나, 그 중 데이트 경험이 혼전 성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¹⁹⁾

Scott²⁰⁾는 청소년의 성의식이 비행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불순이성교재가 비행과정의 입문이라고 했으며, 이길홍²¹⁾은 청소년기 문제행동 중 소년 문제행동의 11.2%, 소녀 문제행동의 21%가 성적 문제행동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소년 성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윤리 규범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전광문²²⁾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청소년의 성문제는 먼저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변화와 성장을 이해하는 일과 성의식의 변화에 따르는 남녀간의 원만한 이성교제를 형성시키며, 이것이 장차 행복한 결혼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성교육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성교육

청소년들이 올바른 이성관을 지니고, 바람직한 성가치관을 정립하여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인 성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김정옥²³⁾은 '성교육이란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에 근거하여 책임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가 협력하여 인간완성을 지향하는 인간교육인 동시에 인격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Lerner와 Spanier²⁴⁾에 의하면 '성교육은 개인이 자신을 성적 느낌과 생식능력을 갖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끔 교육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개개인들이 서로 건설적이고도 의미있는 방

식으로 상호작용하며 또한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학습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종합적으로 성교육은 '성을 중심으로 한 이성간의 적응을 기초로 해서 개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 발달하고, 성숙하여 개인으로서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원만한 대인관계,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전체적인 인간교육'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성교육의 대두는 어느나라에서나 성적으로 문란해진 사회배경과 아울러 성교육에 대한 거센 반발의 시기와 찬반 양론의 의견이 분분한 시기를 거치며, 그런 후에 비로소 성교육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교육적 위치를 확고히 했던 것이다. 더우기 성적 성숙의 가속화 경향과 청소년들의 성범죄 증가는 성교육의 필요성을 대두시켰고, 이것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게 된 공통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성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가 긴밀한 협력 체계하에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교육대상자가 주로 학생들이며, 또 교육이라는 점에서 대개 그 책임은 학교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선진국이며 이들의 성교육 지도방법은 성교육을 교과서와 각종 시청각자료를 이용하여, 관련교과간의 교사협의회 운영, 학생들의 공개적 질문에 대한 교사들의 숨김없는 대답, 질문함 설치 등 각국의 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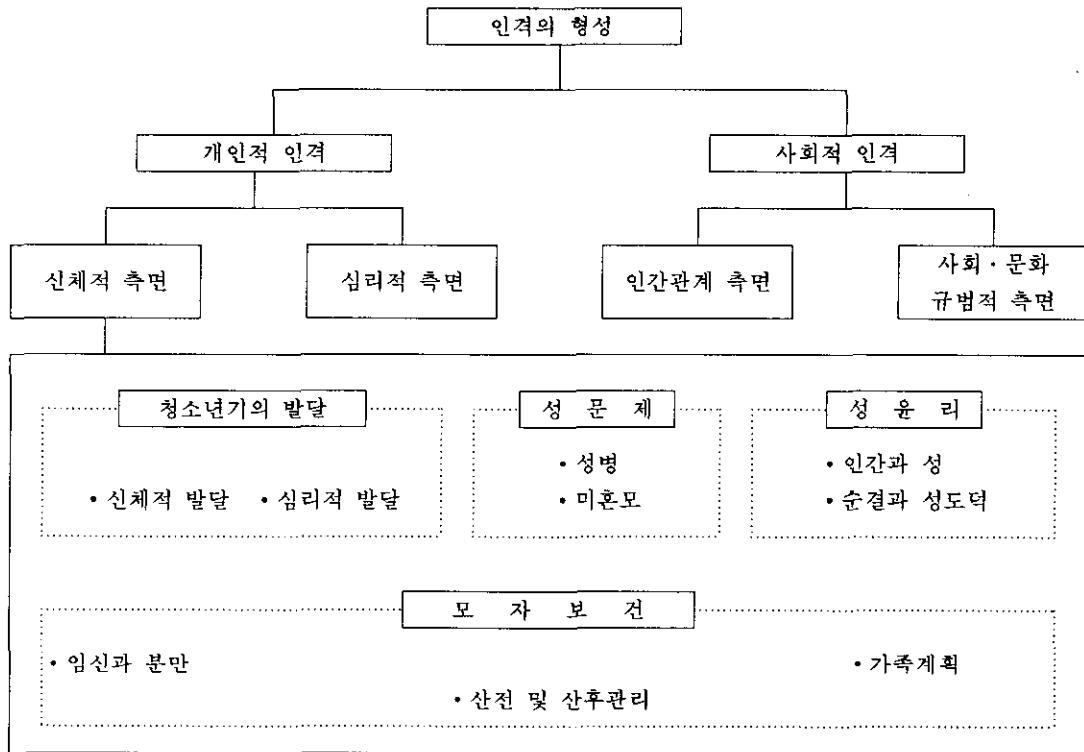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교육을 위한 당국의 지원이 활발해졌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시행상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²⁶⁾

교육부(1983)에서 제시한 학교 성교육의 목표는, 일반목표와 학교급별 목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차와 성의 성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발달단계에 맞추어 습득시킴으로써, 성적 성숙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며 성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이해시킨다.

둘째, 성의식과 성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인격의 형성과 사회화에 도움을 준다.

세째, 성차에 의한 남녀의 특징과 남녀 평등의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이성에 대한 인격의 존중과 협력하는 태도를 기른다.



〈그림 1〉 성교육 내용 모형도

네째 새로운 세대의 육성에 대한 책임과 자각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의 유대 및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짚게한다 등이다.

앞으로는, 이상의 목표에 걸맞는 효과적인 교육이 학교의 현장에서 적절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이 목표들의 달성을 위한 학교 성교육의 적절적인지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장일원²⁷⁾에 따르면, 성교육의 지도내용은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히 지도되어야 하는데, 즉 청소년기의 성교육은 각 학년에 따라, 성별에 따라 적절히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육부(1983)에서 마련한 학교 성교육의 내용은, 교육과정 구성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개의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차원은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급별을 염두에 두고 10개 단계로 구분한 것이며, 둘째 차원은 성교육의 내용을 고려하여 신체발달, 심리발달, 인간관계, 성윤리, 가정생활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염두에 두고 5개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

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책임있는 성행동과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와 발달수준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하는 동시에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 교육개발원(1986)의 '고등학교 성교육 실험수업 결과 보고서'에서 제시한 '성교육 내용 모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한국교육개발원²⁸⁾에서는 '고등학교 성교육 실험수업'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단속적이고 단기집약적인 특설시간의 수업형태로 운영하며, 성교육 전담교사의 확보 및 양성, 다양하고도 체계적인 성교육 교재와 교구의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성교육 대상집단 특성에 따라 신축성 있게 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절히 조정하며, 계속적인 성교육 실험연구

의 수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교육의 지도방법으로 김현옥²⁹⁾이 제시한 지도방법에서의 고려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의 양으로, 이는 학교설정에 따라 조절해야 할 것이며, 시간당 지도의 양은 교과서 수업의 양보다 적게 설정하여 지도교사와 학생간의 호흡이 맞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도의 순서로, 주로 지식이나 이해를 위한 단원은 관련 교과를 통해 전반기에서 지도하고, 특별활동, 학급회, 방송행사로 지도할 내용중 홍보를 위한 것은 학기 초반에 실시하며, 태도변화, 가치관 확립을 위한 지도는 후반에 실시한다.

셋째, 지도자료의 형태는 학급단위 활동을 전제로 하여 그 지도내용과 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구성한다 등이다.

5.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청소년들의 성의식 및 성문제, 성적 갈등에 관한 연구들은 최근까지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되어진 연구 중,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연구는 서봉연, 전광문³⁰⁾이 조사 연구한 '순결교육을 위한 기초조사'이며, 그 이후 채홍덕³¹⁾의 '이성에 관한 관심도 연구', 김원곤³²⁾의 '중·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성교육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김수은³³⁾의 '국민학교 아동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생리적 변화, 심리, 성적 발달의 특성 및 양상, 성에 대한 태도와 관심, 성고민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이성교제에 관한 연구로는 구본석³⁴⁾의 '이성교제에 관한 조사연구'와 김선희³⁵⁾의 '이성교제의 유발 요인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이 있는데, 이 연구들은 주로 남녀 고교생들의 이성교제 실태와 유형에 대한 현황 조사에 그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의 연구로는, 김대식³⁶⁾의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성교제 실태, 성지식의 출처,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성고민에 대해 성별, 지역 별로 조사 분석한, '고교생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명철수³⁷⁾는 서울시 남녀 고교생들의 이성교제의 태도, 성경험의 실태 등을 조사 연구하였다.

박말순³⁸⁾은 경상남도 내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이성교제 실태, 성환경, 성경험과 성지식의 실태 등을

연구하였고, 김희명³⁹⁾은 서울시 고교생들의 순결의식에 대한 정도, 성의식, 성행동과 성의식과의 관련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서성우⁴⁰⁾는 성적 성숙의 시기와 심리적 반응, 이성교재 실태, 성적 자극과 유혹을 받은 경험 등을 조사 연구하였으며, 류혜옥⁴¹⁾의 '청소년의 성의식 및 태도에 관한 일 연구'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의 심리적, 환경적 변인과 청소년의 성의식과의 관계를 성별, 지역별로 비교 연구하였다.

임용자⁴²⁾의 '근로 청소년의 성적 갈등에 관한 조사 연구'는 서울시 야간 고등학교의 산업체 특별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변인별, 성경험별, 정서적 정신 건강별로 성적 갈등의 차이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계화⁴³⁾는 '중·고등학생들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부산 시내 남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성교제 실태, 성에 대한 태도, 성고민 등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의 성의식, 성행동, 성의식 및 태도 등에 관한 실태 조사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다.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성교육의 지도방법, 지도교사, 실시 시기 등에 관한 연구들은 희박하므로 본 연구는 성지식의 정도와 성교육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국외 연구들의 경우, Campbell⁴⁴⁾의 'The Social-Sex Development of Children'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의식 발달과정을 관찰법에 의해 조사 연구한 것이며, Kinsey⁴⁵⁾⁻⁴⁶⁾는 1948년과 1953년에 각각 남성과 여성의 성행위에 관한 방대한 성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특히 10대의 성적 성숙과 성행위에 관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총리부 청소년 대책본부⁴⁷⁾의 '청소년의 성의식 조사'가 있으며, 이 조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의 자각의식, 성애의식, 성지식, 성도덕에 대한 것을 다루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이성관 및 성가치관을 확립치 못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지적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정 청소년들이 어떠한 방법과 내용의 성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본 연구는 최근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성의식 및 성문제와 더불어 그들이 원하는 성교육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 전역의 남·여 중·고등학생(실업, 인문계 포함)을 대상으로 540명을 임의 표집하였으며, 학교 및 사설학원의 교사들로부터 협조를 얻어 조사, 실시하였는데, 총 540명중 부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491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표 1〉에서와 같이 남학생(49.3%), 여학생(50.7%)이 거의 비슷하게 분포되었으나,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생(54.4%)이 중학생(45.6%)보다 좀 더 많이 편중되어 있다(표 1 참조).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의 기본자료는 '성교육' 및 '성'에 관하여 연구된 논문과 서적을 기초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발췌, 작성하였다.

작성된 질문지는 모두 6개 영역으로, 이성교제 실태에 관한 부분 8문항, 성지식 영역 7문항, 성의식 및 성가치관에 관한 부분 4문항, 성문제 영역 4문항, 성교육 부분 10문항, 개인적 환경적 변인에 관한 영역 8문항의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질문방법은 3개에서 7개까지의 보기중에서 자신의 의견에 가깝거나 일치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다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실시는 각급학교 및 사설학원에서 학생들의 수업시간 중에 약 2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교사들이 직접 배부, 실시, 회수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20명에게 실시한 예비 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질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본 조사기간은 1993년 3월 10일~2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특 성 성 별	내 용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학생	242명	49.3
	여학생	249명	50.7
학교유형	남자중학교	39명	7.9
	여자중학교	130명	26.5
	공학중학교	55명	11.2
	남자고등학교	162명	33.0
	여자고등학교	105명	21.4
학업성적	상(上)	138명	28.2
	중(中)	297명	60.6
	하(下)	55명	11.2
교육정도	국졸이하	12명	2.5
	중 졸	74명	15.2
	고 졸	249명	51.2
	대졸이상	151명	31.1
교육정도	국졸이하	40명	8.2
	중 졸	135명	27.6
	고 졸	259명	53.0
	대졸이상	55명	11.2
부모와의 동거여부	같이 산다	456명	93.1
	父와 동거	6명	1.2
	母와 동거	19명	3.9
	헤어져 산다	9명	1.8
생활정도	상 류 총	14명	12.9
	중상류총	143명	29.2
	중 류 총	248명	50.6
	중하류총	64명	13.1
	하 류 총	21명	4.3
	계	491명	100

총 540부를 배부 하였으나 회수된 자료는 512부였으며, 그중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491부를 실제 연구자료로써 통계처리 하였다.

4. 자료분석

회수된 자료 512부 중에서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총 491부를 부호화(coding)한 후, SAS program 을 이용, 전산처리 하였다.

통계분석에 있어서 전체 경향은 빈도(N)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른 빈도차를 보기위해 Chi 검증을 실시하였고, 유의도

(표 2)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

N(%)

반응별	집단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이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84 (17.11)	26 (5.30)	34 (6.92)	76 (15.48)	110 (22.4)
친구로서 교제는 괜찮다.		114 (28.22)	184 (37.47)	140 (28.51)	158 (32.18)	298 (60.69)
나쁜 길로 빠질 위험이 있다.		17 (3.46)	8 (1.63)	14 (2.85)	11 (2.24)	25 (5.09)
아직 학생이므로 이르다.		26 (5.30)	31 (6.31)	36 (7.33)	21 (4.28)	57 (11.51)
기 타		1 (0.2)	0 (0)	0 (0)	1 (0.2)	1 (0.2)
계		242 (49.29)	249 (50.71)	225 (45.62)	267 (54.38)	491 (100)
		$\chi^2=51.614 \ df=4$		$\chi^2=18.809 \ df=24$		
		$P<0.001$		$P<0.001$		

수준은 .05로 정하였다. 또한, 성지식 6문항의 평균 점수와 성별, 학교급별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성지식 평균점수와 이성교제의 유무별, 성지식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생각정도별, 개인적, 환경적 변인별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차이를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이성교제의 실태

최근 중·고등학생들의 이성교제에 관한 의견 및 교제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친구로서의 교제는 괜찮다', '이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응답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성교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좋은 의미와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2〉에서 보듯이 성별,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우선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이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에 많이 반응하여, 이성에 더 많은 호기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성교제의 희망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지금 당장이라도 원한다',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성교제를 희망하고 있으며, 기회만 닿으면 교제할 의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의 36%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학생들이 이성교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그 원인을 찾는다면 현실적으로 임시공부나 부모의 교육열에 대한 암박감으로 이성교제를 할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화¹⁶⁾의 연구에서는 전체응답자의 15%만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과 몇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이 결과는 학생들의 보다 자유로운 이성교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성지식

중·고등학생들의 성지식 정도와 이들의 주된 성지식의 출처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3〉 이성교제의 유무

N(%)

반응별	집단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하고 있다.		108 (22.00)	68 (13.85)	67 (13.65)	109 (22.20)	176 (35.85)
안하고 있다.		133 (27.09)	181 (36.86)	157 (31.98)	157 (31.98)	314 (63.95)
기 타		1 (0.2)	0 (0)	0 (0)	1 (0.2)	1 (0.2)
계		242 (49.29)	249 (50.71)	224 (45.62)	267 (54.38)	491 (100)
		$\chi^2 = 17.332 \text{ df} = 2$		$\chi^2 = 7.313 \text{ df} = 2$		
		$P < 0.001$		$P < 0.05$		

〈표 4〉 성지식

N(%)

구 분	집 단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월경에 관한 지식	혈액이 남아돌아 쓸데없는 것을 버리기 위 한 출혈현상	7 (1.43)	4 (0.81)	6 (1.22)	5 (1.02)	11 (2.24)
	몸상태 조절을 위해 한달에 한번씩 배출되 는 출혈현상	18 (3.67)	15 (3.05)	23 (4.68)	10 (2.04)	33 (6.72)
	몹쓸병에 걸려 있다는 신호로 배출되는 출 혈현상	3 (0.61)	1 (0.2)	2 (0.41)	2 (0.41)	4 (0.81)
	수정되지 못한 난자가 자궁내막의 모세혈관 파괴로 배출되는 출혈	183 (37.27)	222 (45.21)	163 (33.20)	242 (49.29)	405 (82.48)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30 (6.11)	7 (1.43)	30 (6.11)	7 (1.43)	37 (7.54)
	기 타	1 (0.2)	0 (0)	0 (0)	1 (0.2)	1 (0.2)
	계	242 (49.29)	249 (50.71)	224 (45.62)	267 (54.38)	491 (100)
		$\chi^2 = 21.048 \text{ df} = 5$		$\chi^2 = 32.402 \text{ df} = 5$		
		$P < 0.001$		$P < 0.001$		
사정에 관한 지식	정자가 정소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4 (0.81)	7 (1.43)	7 (1.43)	4 (0.81)	11 (2.24)
	수정판이 착상하는 과정	4 (0.81)	2 (0.41)	2 (0.41)	4 (0.81)	6 (1.22)
	정자가 정액과 함께 배출되는 현상	147 (29.94)	189 (38.49)	115 (23.42)	221 (45.01)	336 (68.43)

구 분	질 단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현상	18 (3.67)	11 (2.24)	21 (4.28)	8 (1.63)	29 (5.91)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68 (13.85)	40 (8.15)	79 (16.09)	29 (5.19)	108 (22.00)
기 타		1 (0.2)	0 (0)	0 (0)	1 (0.2)	1 (0.2)
	계	242 (49.29)	249 (50.71)	224 (45.62)	267 (54.38)	491 (100)
		$\chi^2=16.587 \text{ df}=5$		$\chi^2=61.628 \text{ df}=5$		
		P<0.01		P<0.01		
임신의 과정에 관한 지식	배란→수정→착상→태아로 발육하는 전과정	89 (18.15)	118 (24.03)	79 (16.09)	128 (26.07)	207 (42.16)
	수정→착상→태아로 발육하는 과정	39 (7.94)	56 (11.41)	39 (7.94)	56 (11.41)	95 (19.35)
	정자와 난자의 핵이 결합되는 과정	31 (6.31)	21 (4.28)	30 (6.11)	22 (4.48)	52 (10.59)
	배란→수정→착상까지의 과정	26 (5.30)	34 (5.30)	16 (3.26)	44 (8.96)	60 (12.22)
	잘 모르겠다.	56 (11.41)	56 (11.41)	60 (12.22)	16 (3.26)	76 (15.48)
	기 타	1 (0.2)	0 (0)	0 (0)	1 (0.2)	1 (1.2)
	계	249 (49.29)	249 (50.71)	224 (45.62)	267 (54.38)	491 (100)
		$\chi^2=28.053 \text{ df}=5$		$\chi^2=52.046 \text{ df}=5$		
		P<0.001		P<0.001		
아기의 탄생에 관한 지식	배꼽	13 (2.65)	0 (0)	11 (2.24)	2 (0.41)	13 (2.65)
	황문	17 (3.46)	17 (3.46)	28 (5.70)	6 (1.22)	34 (6.92)
	질	165 (33.60)	194 (39.51)	136 (27.70)	223 (45.42)	359 (73.12)
	엄마의 아기낳는 특별한 문	47 (9.57)	37 (7.54)	49 (9.98)	35 (7.13)	84 (17.11)
	기 타	0 (0)	1 (0.2)	0 (0)	1 (0.2)	1 (0.2)
	계	242 (49.29)	249 (50.71)	224 (45.62)	267 (54.38)	491 (100)
		$\chi^2=17.437 \text{ df}=4$		$\chi^2=41.435 \text{ df}=4$		
		P<0.01		P<0.001		

AIDS (에이즈) 에 관한 지식	몸안의 면역기능이 없어지는 성감염증	187 (38.09)	212 (43.18)	147 (29.94)	252 (51.32)	399 (81.26)
	입질균, 매독균에 의한 성병	8 (1.63)	12 (2.44)	14 (2.85)	6 (1.22)	20 (4.07)
	온몸에 발진이 듣는 피부병	9 (1.83)	2 (0.41)	9 (18.3)	2 (0.41)	11 (2.24)
	악수나 키스에 의해서도 감염되는 성병	18 (3.67)	7 (1.43)	22 (4.48)	3 (0.61)	25 (5.09)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20 (4.07)	16 (3.26)	32 (6.52)	4 (0.81)	36 (7.33)
	계	242 (49.29)	249 (50.71)	224 (45.62)	267 (54.38)	491 (100)
		$\chi^2=12.008 \text{ df}=4$		$\chi^2=68.262 \text{ df}=4$		
		P<0.05		P<0.001		
인공 임신 중절에 관한 지식	자연분만이 안되어 인공으로 분만시키는 것	38 (7.74)	67 (13.65)	52 (10.59)	53 (10.79)	105 (21.38)
	태아를 인공적으로 끄집어내 임신을 중지시키는 것	82 (16.72)	92 (18.74)	57 (11.61)	117 (23.83)	174 (35.44)
	자궁에 루프를 넣어 수정을 인공적으로 받는 것	28 (5.70)	22 (4.48)	20 (4.07)	30 (6.11)	50 (10.18)
	정관수술과 난관수술을 일컫는 말	18 (3.67)	11 (2.24)	9 (1.83)	20 (4.07)	29 (5.91)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76 (15.48)	57 (11.61)	86 (17.52)	47 (9.57)	133 (27.09)
	계	242 (49.29)	249 (50.71)	224 (45.62)	267 (54.38)	491 (100)
		$\chi^2=13.611 \text{ df}=4$		$\chi^2=34.809 \text{ df}=4$		
		P<0.05		P<0.01		

이상과 같이 성지식 영역의 6문항을 종합한 결과,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성지식은 월경에 관한 지식(83%)이었으며, 그다음이 AIDS에 관한 지식(81%), 아기의 탄생에 관한 지식(73%), 사정에 관한 지식(68%),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지식(35%)순이며, 가장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임신의 과정

에 관한 지식(19%)이었다.

또한 전체응답자의 성지식 평균점수는 6점 만점에 3.46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느 정도의 성지식 수준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의 〈표 5〉와 〈표 6〉은 성지식 점수를 성별, 학급별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5〉 성별, 학급별 성지식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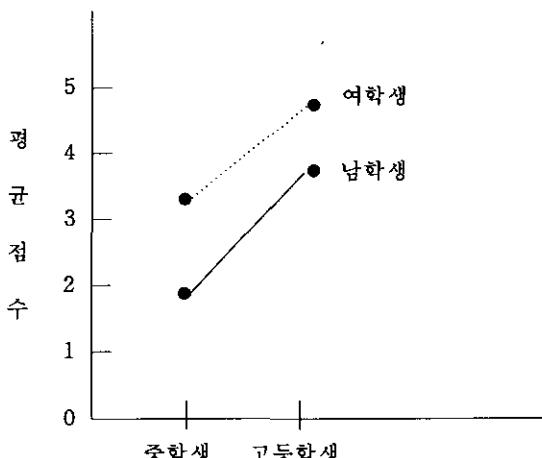
성별 * 학교급별	빈도(N)	Mean(평균점수)	SD
남자 중학교	80	1.99	1.63
남자 고등학교	162	3.98	1.26
여자 중학교	144	3.46	1.53
여자 고등학교	105	4.45	0.95

(표 6) 성지식 점수에 대한 성별, 학교급별 이원 변량분석

변량원	DF	SS	MS	F	P
성별	1	107.45	107.45	58.75	0.0001
학교급별	1	252.21	252.21	137.92	0.0001
성별*학교급별	1	28.37	28.37	15.51	0.0001
오차	487	890.60	1.87		
합계	490	1199.76			

이상의 결과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성지식에 관해 더 정확히 알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여학생과 고등학생의 부분적인 성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5)에 의하면 성지식 점수는 성별, 학교급별, 각각의 변수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성별과 학교급별의 두 변수가 함께 작용하여 성지식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성별, 학교급별 변수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이 작용에 따라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성지식 점수가 높았으며,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의 성지식 점수가 높았다. 또한 이 두 요인이 함께 작용한 여자 고등학생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남자 중학생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중학생의 남녀간 성지식 점수차는 1.47점, 고등학생은 0.47점으로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의 남녀간 성지식 점수차 간격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녀간의 성지식 수준이 비슷해져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의 (표 7)과 (표 8)은 학업성적에 따른 성지식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것인데,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표 9)에서와 같이 Newman-Keuls의 추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업성적이 '상'인 집단과 '하'인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성지식 점수 또한 높고,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성지식 점수 역시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업성적

(표 7) 학업성적별 성지식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학업성적별	빈도(N)	Mean(평균점수)	SD
상	138	3.85	1.41
중	297	3.53	1.56
하	55	3.31	1.83

(표 8) 학업성적과 성지식 점수간의 일원 변량 분석

변량원	DF	SS	MS	F	P
학업성적별	2	14.50	7.25	2.99	0.05
오차	487	1179.50	2.42		
합계	489	1193.99			

(표 9) 학업성적과 성지식 점수간의 변량에 대한
Neuman-keuls 검증

Neuman-keuls Grouping	Mean	N	구분
A	3.85	138	상
AB	3.53	297	중
B	3.30	55	하

과 성지식 수준간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성지식의 출처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 의 46%가 교과서나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26%가 친구로부터, 9%가 대중매체로부터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이는 상당수(46%)의 학생들이 전전한 방법으로 성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때문에 학교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학교 성교육의 영향력과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부분이다.

3. 성의식 및 성가치관

학생들의 성에 대한 의식을 보면 (표 10)과 같이 전체응답자 중의 과반수 이상인 66%가 '성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과정의 하나'라고 응답하여 바람직 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 학교 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을 폐락주의적인 측면으로 의식하는 경향이 크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성을 자연스럽게 의식하는 면이 크다.

성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응답자 수의 71%가 '남녀 모두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응

답하였는데, 이계화¹⁹⁾의 연구에서는 69%로 나타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꼭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12%나 되어 학생들 사이에도 성개방 풍조에 따른 순결의식의 회박성이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별, 학교급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남녀 모두의 순결을 강조하였고, '여자가 더 지켜야 한다', '결혼할 사이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꼭 지킬 필요없다'의 세 가지 항목에는 남학생이 더 많이 응답하여 남학생의 성에 대한 개방성과 이중적 기준을 엿볼 수 있다.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는 응답 학생중의 69%가 '도덕적 양심과 정신건강을 위해서'라고 응답했으며, 19%가 '이 다음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학생들이 결혼과 순결의 관련여부를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성문제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성적 성숙으로 인하여 성에 관한 고민들이 많을 것이라 기대하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연구한 결과, 전체응답자 중의 과반수 이상인 55%가 성에 관한 문제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11)에서 보듯이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수가 많았고, 성충동과 자위는 남학생이, 자신의 신체구조와 2차 성징문제로 여학생이 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성에 대한 의식

반응별	집단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성스럽다		30(6.11)	14(2.85)	19(3.87)	25(5.09)	44(8.96)
추하다		9(1.83)	28(5.30)	14(2.85)	21(4.28)	35(7.13)
즐거움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24(4.89)	8(1.63)	8(1.63)	24(4.89)	32(6.52)
인간의 자연스런 과정의 하나이다		153(31.16)	173(35.23)	147(29.94)	179(36.46)	326(66.40)
결혼후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22(4.48)	25(5.09)	33(6.72)	14(2.85)	47(9.57)
기 타		4(0.81)	3(0.61)	3(0.61)	4(0.81)	7(1.43)
계		242(49.29)	249(50.71)	224(45.62)	267(54.38)	491(100)
		$\chi^2=23.542 \ df=5$		$\chi^2=17.552 \ df=5$		
		$P<0.001$		$P<0.001$		

〈표 11〉 고민중인 성문제

집단별 반응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신체구조 및 2차성징	15(3.05)	39(7.94)	35(7.13)	19(3.87)	54(11.00)
성충동	97(19.76)	15(3.05)	20(4.07)	92(18.74)	112(22.81)
자위	22(4.48)	4(1.02)	5(1.02)	22(4.48)	27(5.50)
월경과 통증	7(1.43)	11(2.24)	10(2.04)	8(1.68)	218(3.67)
고민없다	98(19.96)	174(35.44)	150(30.55)	122(24.85)	272(55.40)
기 타	3(0.61)	5(1.02)	4(0.81)	4(0.81)	8(1.63)
계	242(49.29)	249(50.71)	224(45.62)	267(54.38)	491(100)
$\chi^2=103.952 \text{ df}=5$			$\chi^2=61.541 \text{ df}=5$		
P<0.001			P<0.001		

〈표 12〉 성적 충동의 해소방법

집단별 반응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자위행위를 한다	69(14.05)	9(1.83)	13(2.65)	65(13.24)	78(15.89)
공부에 전념한다	10(2.04)	15(3.05)	14(2.85)	11(2.24)	25(5.09)
운동, 음악감상을 한다	104(21.18)	86(17.52)	102(20.77)	88(17.92)	190(38.70)
성행위를 한다	17(3.46)	2(0.41)	2(0.41)	17(3.46)	19(3.87)
성충동 느낀 적 없다	32(6.52)	130(26.48)	92(18.74)	70(14.26)	162(32.99)
기 타	10(2.04)	7(1.43)	1(0.20)	16(3.26)	17(3.46)
계	242(49.29)	249(50.71)	224(45.62)	267(54.38)	491(100)
$\chi^2=120.439 \text{ df}=5$			$\chi^2=60.824 \text{ df}=5$		
P<0.001			P<0.001		

〈표 13〉 성문제의 의논상대

집단별 반응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부모와 상의	5(1.02)	26(5.30)	17(3.46)	14(2.85)	31(6.31)
선생님과 상의	7(1.43)	5(1.02)	12(2.44)	0(0)	12(2.44)
친구와 상의	67(13.65)	92(18.74)	77(15.68)	82(16.70)	159(32.38)
성상담전화이용	7(1.43)	4(0.81)	6(1.22)	5(1.02)	11(2.24)
잡지나 서적통해	39(7.94)	20(4.07)	16(3.26)	43(8.76)	59(12.02)
스스로 해결	74(15.07)	49(9.98)	56(11.41)	67(13.62)	123(25.05)
해결못해 고민중	24(4.89)	19(3.87)	22(4.48)	21(4.28)	42(8.76)
기 타	19(3.87)	34(6.92)	18(3.67)	35(7.13)	53(10.79)
계	242(49.29)	249(50.71)	224(45.62)	267(54.38)	491(100)
$\chi^2=35.242 \text{ df}=7$			$\chi^2=27.802 \text{ df}=7$		
P<0.001			P<0.001		

이 결과는 성충동이나 자위문제가 남학생에게 많은 고민거리이며, 여학생은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 충동의 해소방법에 대해 묻는 문항은 전체 응답자 중의 39%가 '운동이나 음악감상 등으로 해소한다'고 응답하였고, 33%가 '성충동을 느낀 적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성충동을 느끼지 못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표 12 참조).

성문제의 의논상대로는〈표 13〉과 같이 32.4%가 친구와 상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5%가 의논상대가 없어 스스로 해결한다고 답하여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성문제를 친구와 상의 또는 스스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만큼 부모(6.3%)나 교사(2.4%)와의 성에 관한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5. 성교육

학생들이 알고 있는 성교육의 의미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가 성교육의 개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단순한 월경, 사정, 성병예방, 피임을 위한 교육으로 보는 경향은 9%정도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학교 성교육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표 15〉에

〈표 14〉 알고 있는 성교육의 의미

반응별	집단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생식구조, 임신, 출산에 관해서만 교육하는 것이다.		16(23.26)	9(1.83)	14(2.85)	11(2.24)	25(5.09)
월경, 사정, 피임, 성병예방에 관해서 교육하는 것이다.		29(5.91)	16(3.26)	11(2.24)	34(6.92)	45(9.16)
올바른 성의식과 성행동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168(34.22)	201(40.94)	171(34.83)	198(40.33)	369(75.15)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전전한 태도를 가르는 것이다.		20(4.07)	22(4.48)	21(4.28)	21(4.28)	42(8.55)
기타		9(1.83)	1(0.2)	7(1.43)	3(0.61)	10(2.04)
계		242(49.29)	249(50.71)	224(45.62)	267(54.38)	491(100)
			$\chi^2=15.065 \text{ df}=4$	$\chi^2=12.018 \text{ df}=4$		
			P<0.05	P<0.05		

〈표 15〉 학교 성교육의 경험 유무

N(%)

반응별	집단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받은 적이 있다		167(34.15)	234(47.85)	200(40.90)	201(41.10)	101(82.00)
받은 적이 없다		66(13.50)	12(2.45)	23(4.70)	55(11.25)	78(15.95)
잘 모르겠다		8(1.64)	2(0.41)	1(0.2)	9(1.84)	10(2.04)
계		241(49.28)	248(50.72)	224(45.81)	265(54.19)	189(100)
			$\chi^2=52.090 \text{ df}=2$	$\chi^2=16.207 \text{ df}=2$		
			P<0.001	P<0.001		

서와 같이 82%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에서 체계적이진 못하지만 부분적이나마 교사에 의해 조금씩 교육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5)에서와 같이 성별로는 여학생이 더 많이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받은 적이 없다'에는 남학생이 더 많이 응답하였는데, 이 결과는 여학생들에게는 가정과목 등의 관련교과에서 지도받을 기회가 남학생에 비해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의 54%가 성교육은 '꼭 필요하다', 30%가 '가능하면 받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여 대부분(84%)의 학생들이 성교육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교육의 필요한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는 71%가 학생이 '올바른 성지식을 배우고 성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9%가 '성적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고 대답하였다.

원하는 성교육의 장소를 물어본 결과 54%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받고 싶다'라고 응답하였고, 23%가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받고 싶다'라고 하여 대다수(77%)의 학생들이 학교 성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학교 성교육의 방법으로는 전체 응답자 중의 과반수 이상인 55%가 시청각교재를 통한 특별강의를 원하고 있으며, 21%가 관련 교과에서, 20%가 정규 학과목으로 체계적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많은 학생들이 딱딱한 수업방식과는 달리 시각과 청각을 통한 흥미로운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 성교육의 실시 시기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의 40%가 중학교 입학후부터 실시하기를 원하며, 37%가 국민학교 입학후부터 성교육이 실시되기를 원하고 있어 국민학교 교육의 시작과 함께 성교육도 병행되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학교 성교육의 교사로는 응답자 중의 50%가 특별 초빙강사를 원하며, 19%가 양호교사, 18%가 관련 교사로부터 성교육 지도를 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의 학생들이 성교육을 조금은 특별한 지도방법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배우고 싶어함을 짐작할 수 있다.

부모의 성교육 태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의 72%가 성에 대해 부모에게 질문한 적이 없으며, 17%가 '친절히 설명해 주신다', 10%가 '대답을 회피하신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부모에게 성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비율은 선행연구 결과들에 비해 증가한 면모를 보이지만, 학생들이 마음은 있으면서도 실제로 교제하는 것은 꺼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성교제에 대한 의식이나 실태는 성별,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여 남학생일수록, 고등학생일수록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청소년들의 성지식 정도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성지식 점수가 60점 가량으로 어느 만큼의 성지식 수준은 갖추고 있으며, 이들의 성지식 정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성지식 출처는 교과서나 학교선생님, 친구, 대중매체 등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전한 방법에 의해 성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나, 또래집단인 친구나 그밖의 애곡된 성적 자극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바람직한 성의식관을 지니고 있으며, 남녀 모두의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여자는 지켜야 하고, 남자는 팬찮다'는 식의 성에 대한 이중적 기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문제의식의 측면을 시사하고 있다.

4. 연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성에 관한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성별,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여 남학생일수록, 고등학생일수록 성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 또는 교사와의 성관련 상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 언급회피 경향'을 보이는 성인들의 태도가 학생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내에서의 체계적인 조

기 성교육 실시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성교육 전문 강사로부터 시청각을 이용한 교수방식으로 지도반기를 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성에 관한 문제를 느낄 거를 도 없이 공부에 사달리고 있으며, 그런 와중에서 잡지나 서적류를 통하여 혼자 성고민을 해결하고자 하거나, 친구와의 상의로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불확실하고 그릇된 성 정보일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각종 성문제와 성범죄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문제는 청소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을 대하는 기성세대의 사고방식과 태도에 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며, 어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청소년들의 장래가 가늠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의 실시는 물론 이거니와, 청소년을 위한 여러 측면에서의 연구가 강구되어져야 하며, 그 연구들이 실천화되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피상적인 성기 교육이나 성병 예방 등의 부분적인 지식 교육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인간 관계 훈련으로서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자신과 타인의 각 발달단계별, 성별, 신체적, 성적 변화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에 알맞는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의 금기적 문화와 개방적 풍조 사이에서 자신을 지키고 올바른 비판을 가할 수 있도록 명석하고 주체적인 판단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성교육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 각 연령 및 성별에 알맞는 시청각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교육 전문교사나 강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점진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현

- 1) 제희우, “청소년의 성문제에 관한 종합 처방”, *신양세계*, 5월호, p. 160, 1976.
- 2) 이계화, 중, 고등학생들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3) 김정희, “청소년과 성폭력: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 연구* 제10호, pp. 169-180, 1992.
- 4) 함종한, *청소년학 원론*,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2.
- 5) 김성태, *발달심리학*, 서울: 범문사, 1975.
- 6) 정영윤, 김명훈, *심리학개론*, 서울: 박영사, 1986.
- 7) Schwartz, G. & Merten, D., *The language of adolescence: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the youth cultur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2 : pp. 453-468, 1976.
- 8) Jersild, A. T., *The Psychology of Adolescence*, 1957.
- 9) 류혜옥, 청소년의 성인식 및 태도에 관한 일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10) Freud, A., *The ego and mechanism of defenc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48.
- 11) 최신덕, 결혼과 가족,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88.
- 12) 윤현숙, 여자중학생의 성적 수준과 그 지식 균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 13) 정하성, 청소년과 성, 서울: 한국청소년문제 연구소, 1992.
- 14) Murray, H. A. (ed), *Exploration in Personality*,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38.
- 15) 안창선, 김현옥 편저, *학교 성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91.
- 16) 김정희, 전계서.
- 17) Jersild, 전계서.
- 18)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 성교육 실험 수업 결과 보고서*, 서울: 민족문화문고 진행회, 1986.
- 19) 김광일, 정원식, 이재창, 청소년 행동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연합회*, 1986.
- 20) Scott, 전계서.
- 21) 이길홍, “청소년들의 성윤리 정립을 위한 개선책”, *청소년*, p. 63, 1985.
- 22) 전광문, *고교생을 위한 순결교육*, 서울: 동구출판사, 1968.
- 23) 김정숙, *학교 성교육*,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2.

- 24) Lerner, R.M. & Spanier, G.B., "A Life-Span Perspective", New York : McGraw-Hill, 1980.
- 25) 김정옥, 전계서.
- 26) 김정옥, 전계서.
- 27) 장일원, 성교육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의식 조사 분석,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28)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 성교육 실험수업 결과보고서, 서울 :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6.
- 29) 김현옥, 안창선편저, 전계서.
- 30) 서봉연, 전광문, 순결교육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서울 : 중앙교육연구소, 1965.
- 31) 채홍덕, "이성애 대한 관심도 연구", 한국의 교육, 서울 : 대한교련, 1968.
- 32) 김원곤, "중,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성교육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공중보건잡지 제6권 제1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69.
- 33) 김수은, 국민학교 아동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 조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 34) 구본석, 이성교제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 35) 김선희, 이성교제의 유발요인에 관한 조사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